화순 도곡면 전원생활 중심지 급부상

지석천변 등 주택건축 붐
귀농·귀촌인 몰려 인구 증가
광주 인접 풍광 뛰어나 인기

화순군 도곡면이 전원생활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석천변 도곡면 천암리 일원의 지석천변은 전원 택지개발과 주택 건축 붐이 일고 있다. 농촌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기존 마을을 중심으로 동쪽 야산에 주택단지(엘리시움)가 조성되고 있다. 1차로 분양 30가구 중 70%가 완료된 상태이며, 2차까지 계획하고 있다.

도곡초등학교 서쪽 야산에는 70여세대 주택부지를 조성해 현재 분양중이다. 이밖에도 신덕리와 신성리에 10세대의 개별적인 건축이 이뤄지고 있으며, 강 건너인 대곡리와 효산리, 월곡리와 쌍옥리에도 도시민의 토지거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전원생활을 위해 귀촌하는 이들 중에는 대학교수와 기업 대표이사, 기관 고위직 출신 등 저명한 인사나 예술가 등이 많이 이주해 있고, 최근에는 은퇴를 앞두고 고향으로 귀촌하고자 하는 이들도 점차 늘고 있다.

도시민이 몰려들면서 도곡면 인구는 8월 현재 1578세대 304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전국 대부분의 농촌마을이 고령화와 함께 인구 감소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도곡면이 귀농·귀촌지역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광주시 남구와 근접한데다 마을 앞에 지석천을 끼고 있는 배산임수형의 지형 조건이 매력적이라는 게 화순군의 설명이다.

특히 도곡면은 소소미술관과 석촌수석관, 천연염색으로 유명한 풀빛, 마을 곳곳에 들어선 독특한 찻집 등이 많고, 지난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화순 고인돌문화유적지와 국보인 팔주령과 세형동검 등이 발견된 대곡리 청동기 출토유적지, 국가 중요 민속자료인 전통가옥 양동호, 양승수 가옥 등 전통문화유산도 풍부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도곡면은 도심과 가깝고 다양한 문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다, 도곡온천관광지와 화순CC, 조아밸리 등 골프장과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 등도 즐비해 귀농귀촌은 물론 휴양을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기자 byj@

폭염도 잊게 하는 화순 송석정 절경

화순군 이양면 강성리에 있는 송석정(松石亭)이 지석강변의 암벽 위에 강과 기암괴석, 노송과 어우러져 한여름 폭염도 잊게 하는 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학포 양팽손의 증손인 양인용(梁仁容, 1555~1615)이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서궁으로 유폐시키는 등 폐륜을 저지르자 이의 부당함을 상소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관직을 버린 후 낙향해 1613년 건립했다고 한다.

자신의 호를 따서 송석정(松石亭)이라 불렀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팔작지붕의 목조건축물로 중앙에 방이 있다. 150여개의 현판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현재는 30개의 현판이 남아있다. 독립지사인 안방준과 광주학생운동의 주역인 운인 송홍(雲人 宋鴻)의 시액이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화순군 18억 들여 재해예방 임도 신설·보수

화순군이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도시설 설치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18억8천만원을 들여 오는 11월까지 간선임도 신설 2곳 4km, 작업임도 2곳 2km, 구조개량 4곳 4km, 임도보수 28km 등 임도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임도는 산림사업과 함께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농·산촌 마을 사이 연결, 임산물 채취 등 소득원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산림도로로 설치했다.

최근에는 이 같은 기존 목적과 함께 숲가꾸기 산물수집 등 작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선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산을 찾는 주민과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의 산림레포츠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도를 개설하고, 기존 임도도 보수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1984년부터 2015년까지 131곳 259km의 임도를 신설했으며, 집중호우 등 재해우려가 많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임도 보수작업 및 구조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배영재기자 byj@

장성·완도군 '원격진료 시범 지자체' 선정

장성군과 완도군이 정부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추가 선정됐다.

17일 장성군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사업 추가 시범지역으로 장성군을 지정했다. 전국 6개의 시범지자체 중 내륙지역은 장성군이 유일하다.

디지털헬스케어사업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지리적 여건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주관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초부터 신안군, 진도군, 충남 보령시에서 최초 시행됐으며, 원격진료에 대한 환자만족도가 매우 높아 최근 장성군을 비롯한 완도군과 인천 옹진군 등이 추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장성군은 이달말까지 의료시스템을 구축한 후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원격진료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장성으로 이주한 귀농인들이 영농현장에서 체험교육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초보 귀농인 하반기 영농체험교육

9월 3일~11월 26일…교육생 35명 선착순 선발

장성군이 초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교육에 나선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17일 "장성으로 이주한 새내기 귀농인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하반기 새내기 영농체험농장교육'과 '영농정착기술교육(시설원예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내기 영농체험농장은 장성군의 대표 특산품인 딸기, 사과, 감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작목별로 영농기술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도농가 농민들이 강사로 나서 매주 토요일 작목별로 6회씩 운영된다.

시설원예에 관심 있는 귀농인을 위한 영농정착기술교육은 토양관리, 채소재배 기초이론 등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 교육과, 현장견학, 6차 산업 성공사례 등 귀농인의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정보제공에 중점을 두고 매주 금요일 8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귀농·귀촌예정자나 신규귀농인은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우편, 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되고 교육생은 선착순 35명을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061-390-84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21~23일 이틀간 담양서 국제 웹영화제

담양에서 아시아 유일의 국제 웹영화제인 '2016 KWEB FEST'가 열린다.

17일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로 제2회를 맞는 아시아 유일의 국제 웹영화제 '2016 KWEB FEST' 1부 행사가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데 이어 본격적인 2부 행사는 21일부터 23일까지 담양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디지털 모바일 세대의 새로운 문화콘텐츠인 '웹시리즈(웹드라마)'는 10분 내외의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된 동영상 시리즈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동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콘텐츠다. 최근에는 영화제처럼 별도의 시상식을 가질 정도로 대중화된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 웹드라마의 세계화를 위해 열리는 'KWEB FEST'는 올해 트랜스 미디어의 대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미국 USC 미디어학과 교수인 헨리 젠킨스 등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가한다.

특히 KWEB FEST 참석자 100여명은 21일부터 담양에서 웹콘텐츠 세미나와 웹영화제 사업설명회, 관광지 답사 등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담양을 방문하는 인사들은 8개국에서 모인 영화관계자 30여명과 이장호 감독을 비롯한 유명 영화감독, 시나리오작가, 배우 등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토지, 6000평
투자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의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33억원 / 매매 - 27억 (일시불 조정가)
- 계획관리지역 / 개발호재 많음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소유자 H. 010-3627-8282